

월간 칸달

May

눈을 땀 수 없었던
쓰라이들의 변신!!

Mr. Rithy 장가가다!!

칸달 특집
집중 취재!!

마을에서 무슨 일이..?
강희 단원과과의 단독 인터뷰!!

감동의 도가니
김치에 정을 담아 주신
아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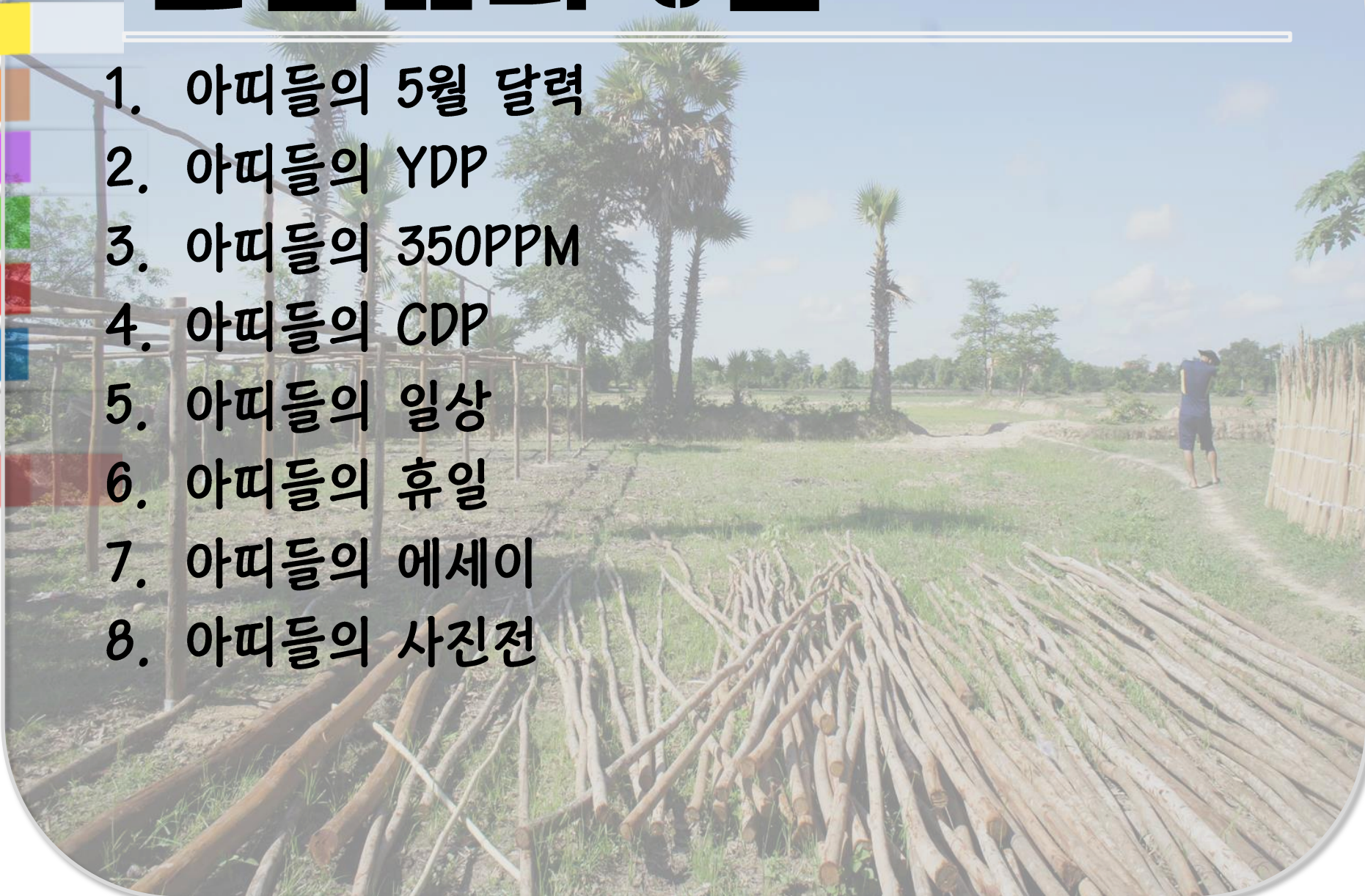


June 10 Issue No. 99



깐달림의 5월

1. 아띠들의 5월 달력
2. 아띠들의 YDP
3. 아띠들의 350PPM
4. 아띠들의 CDP
5. 아띠들의 일상
6. 아띠들의 휴일
7. 아띠들의 에세이
8. 아띠들의 사진전



M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Cooking class	3 스리랑카 9기 윤도희 단원 방문	4
5 한국어 수업	6 Restaurant meeting 영어 수업	7 Handicraft 피켓만들기 김치 한국어 수업	8 마을 청소 맹's brother 결혼식	9 Sports activity 한국어 수업	10	11
12 한국어 수업	13	14 시하모니 왕 생일	15	16 한국어 수업	17 Hydroponic 활동	18
19 CD Taut Ma 350ppm meeting (1) 한국어 수업	20 CD Taut Ma Rithy 결혼식	21 CD Taut Ma 한국어 수업	22 CD Taut Ma 영어 수업	23 CD Taut Ma 한국어 수업	24	25 차끄다으 배운 날
26 CD Svay Prey 한국어 수업	27 CD Svay Prey 350ppm meeting (2)	28 CD Svay Prey 한국어 수업	29 축구 경기 영어 수업	30 CD Svay Prey 한국어 수업	31 Riverside 짝 소풍	

아띠들의 YDP



제준 효과 : 수업 시작하기 전 제준 단원이 직접 학생들을 불러와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컫는다.

1. KOREAN CLASS (YOUTH)



인원문제로 걱정하던 KOREAN CLASS가 제준 효과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이 늘고, 분위기 또한 좋아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항상 들어오던 학생들과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간의 수준차이로 인해 아피들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꾸준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수업 진도 또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업을 도와주는 보조 단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

350PPM 미팅으로 인해 월요일마다 수업을 거르게 되어 수업이 월 → 수 → 금으로 이어지지 못해 진도 상의 문제가 생겼었다.

2. KOREAN CLASS (CHILDREN)



고민 1

엇쩍사건 : 여자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며 여자 아이들이 수업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었다. 여자 아이들이 남자 단원들만 보면 엇쩍(하기 싫어!) 을 말하는 바람에 남자 단원들은 더 이상 Children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민 2

월요일마다 350PPM 미팅을 진행했는데, 여자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을 원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여자 단원 세 명이 350PPM 미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자 단원 모두 350PPM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어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고, 홀로 수업을 진행했던 예은 단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고민 3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요즘 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아띠들을 편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학생들을 새로 모집하기도 애매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려니 우리 같은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3. ENGLISH CLASS (Intermediate)



영어 수업 또한 제준 효과로 인해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 많은 학생들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를 경험 삼아 Intermediate반을 담당하는 효림, 강희 단원은 좀 더 학생 참여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근로자의 날, Mr. Meng 동생 결혼식, 캄보디아 왕 탄신일, Mr. Rithy 결혼식 등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빠진 날이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했는데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다.

4. ENGLISH CLASS (BASIC)



Basic반은 제준 효과로 인해 지난 달 대비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반입니다. Basic반 또한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수업 마치고 전 Hangman game 등의 게임으로 인해 학생들이 즐거워했고, 조용히 수업만 듣던 학생들도 활발하게 참여해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고민 1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다. 적극적인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 옆에 앉아서 배우려고 하지만 소극적인 학생들은 보조 단원들이 도와주러 가기 전 까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민 2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앞 줄에 앉은 학생들은 잘 따라오는 반면 뒷 줄에 앉은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수업 진도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 지 고민이다.

5. COOKING CLASS



Korean week를 맞이하여 5월 Cooking class에는 자랑스러운 한식-비빔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추장, 참기름, 호박, 당근, 오이, 상추, 계란 지단을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었고, Youth 학생들, Caritas Staff, 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준 단원이 보통 한국인의 식성을 생각해서 고추장을 듬뿍 떠주는 바람에 몇몇 학생들과 아이들은 매워서 잘 먹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야채를 생으로 잘 먹지 않는 캄보디아 식 문화를 고려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상추를 아예 먹지 않거나, 상추를 빼고 달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Cooking class부터 이번 달 메뉴, 비빔밥까지 두 그릇씩 비운 한국 입맛 Youth 들 덕분에 아띠들은 힘을 냈다고 합니다.

6. SPORTS ACTIVITY



지난 달에 이어 해가 살짝 기운 오후 4~5시에 피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에 해본 학생들이 많아 중간중간 끊김 없이 너무도 재미있게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Caritas staff인 Mr. Thann, Outdom, Sameun 씨도 같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특히 Mr. Outdom 씨는 피구를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만능 재주꾼 Mr.Outdom



7. RESTAURANT MEETING



Restaurant meeting에서는 지난 달, Staff 들과 같이 만든 설문 문항을 토대로 해당 설문 문항들에 대해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akhmao 마을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고, 지금까지 Restaurant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와 앞으로의 Business Plan에 대해 토의해보았습니다.

កុមារីក្រសួងបរិស្ថាន និង វិទ្យាសាស្ត្រ បរិស្ថាន



1. 마을 청소 WITH YOUTH STUDENTS



Painting반 학생들과
피켓 만들기!!



지난 달, 아띠들은 350PPM Campaign에 대해 유스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달에는 아띠들과 유스들이 직접 마을의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쓰레기를 줍기 전, 이런 마을 청소 활동을 하는 데에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아띠들은 놀랐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센터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모두 함께 '째요!'를 외치며 행진을 하는데에서 유스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너무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마을에, 그리고 길에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어서 아띠들은 쓰레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워야 할 지에 대한 막막함도 느꼈다고 합니다.

1. 마을 청소 WITH YOUTH STUDENTS



350PPM 캠페인에 대해 학생들과 기획하기에 앞서서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유스들과 아띠 모두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을 청소 활동 이후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평소 한국어/영어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350PPM 미팅에 참여한 것도 아마 이 활동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아띠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습니다.

2. 350PPM MEETING WITH YOUTH



마을 청소 이후, 아띠들은 350PPM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서명을 하였고, 실제 350PPM 캠페인 미팅 때에는 서명을 해준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5월에는 두 차례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첫 번째 미팅 때는 지난 번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스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사무국의 350PPM 캠페인 제안서 내용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 까지 조 별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350PPM MEETING WITH YOUTH



두 번째 미팅 때는 첫 번째 미팅 때 학생들이 말했던 캄보디아의 환경 문제 가운데 **350PPM 캠페인** 때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 또한 그룹별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350PPM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aritas 스태프인 **Mr. Thann** 씨와 **Mrs. Phirum** 씨가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도와 주신 것에 대해 아띠들은 매우 감사했고, 아띠들의 한국어/영어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던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빛과 진지한 태도로 미팅에 참여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유스들과 함께 했던 350PPM 캠페인 준비가 너무 재미있었지만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빠들의 CDP



1. VEGETABLE GROWING



간달 팀은 마을에 나가 농사를 배우는 중인데요, 제가 한번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침 씨앗을 뿌리기 전 땅을 갈아엎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잠시 강희 단원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땅을 파는 작업은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단원들은 비 오듯 땀을 흘리고.. 5시간 만에 물 10L를 마시기도 해요.. (화장실은 잘 안 가요..)

그치만 모두들 재미있어 합니다.

몸을 쓰는 일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미칠 듯 더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잠깐 허리를 폈을 때 느껴지는 그 바람은 가히 중독적이랍니다!!!

1. VEGETABLE GROWING



Step 1. 농기계를 준비합니다.



Step 2. 자세를 잡습니다.



Step 3. 그냥 계속 팍니다!



Step 4. 땀이 흐르는 것을 즐기세요!

1. VEGETABLE GROWING



마을 분들, 아저씨께서는 허리를 쓰지 않고 밭을 가시는데, 저희는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엉덩이를 쪽 빼고 하죠. 그럼 저녁에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 자세는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ㅜ^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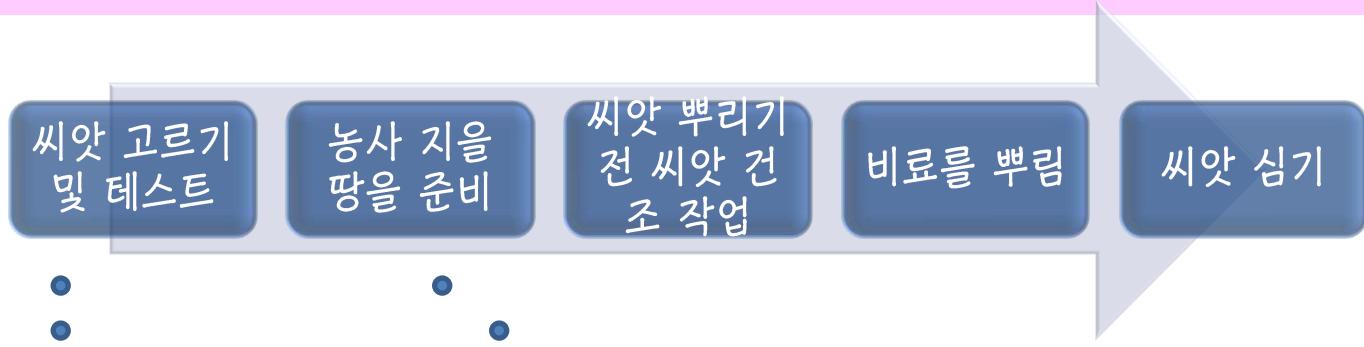
1. VEGETABLE GROWING



땅을 준비했다면, 이제 씨를 뿌려야죠~~~!!
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샤워할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함은, 덤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입니다.
뜨러꾼아, 잘 자라렴!!!!



3. HOW TO GROWING VEGETABLE?



땅의 일부분 ←

파종 전, 씨앗을 테스트 해본다.


씨앗은

1.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
2. 시장의 수요가 있는 작물의 씨앗
3.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도록 개량된 회사의 제품

Step 1.
소 혹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땅의 잡초를 제거한다.


Step 2.
잡초가 죽을 때까지 땅을 건조시킨다.
이 과정을 최소 2~3번 반복한다.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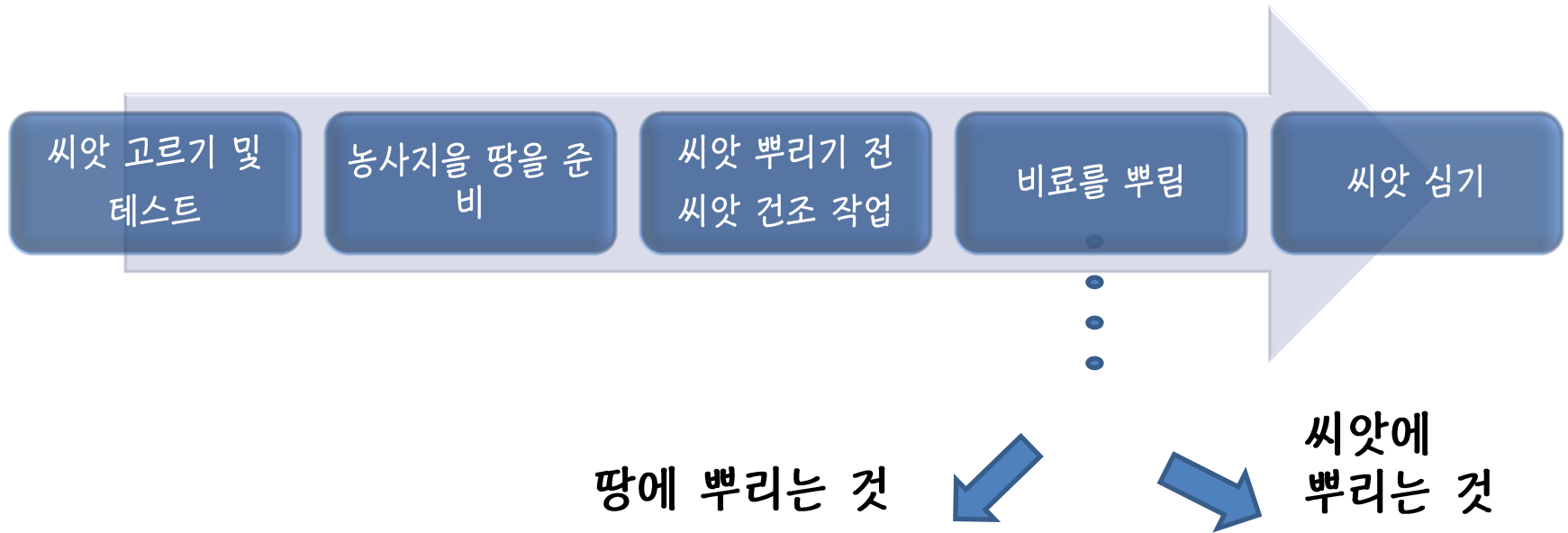
땅을 땅바닥에서 20~30cm 높게 쌓아 올린다. 산소를 확보하고, 홍수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다.

Step 4.
이랑 사이에 30~4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Step 5.
잎, 나무, 건초, 동물의 대변 등으로 만든 유기농 비료를 땅에 넓게 퍼 바른다.

3. HOW TO GROWING VEGETABLE?



Step 1.

유기농 비료를 만든다.

Step 2.

작은 작물 : 비료 50cc를 물 20L에 희석

큰 작물 : 비료 100cc를 물 20L에 희석

Step 3.

100m²당 비료 300kg을 뿌린다.



파꼬데마(회사이름)에서 나온 비료에 20~30분 정도 씨앗을 담근다.

(개미가 파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파꼬데마 30g을 물 20L에 희석

3. HOW TO GROWING VEGETABLE?



브띠이 2kg



스웨이 2kg

유기농 비료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파인애플
2kg



망고
2kg



팜슈가
3kg

15일
발효



스꼬 트나웃 썬
(비료 이름)

*서늘한 곳 혹은 밀폐된
컨테이너 안에서 보관 시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3. HOW TO GROWING VEGETABLE?



야채 씻기



팜슈가 넣기



섞기

골고루 섞기

컨테이너에 넣기

15일 발효



잠시 휴식!!!



잠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오제준 단원을 관찰해볼까요?

앗! 또 아이들이랑 놀고 있군요! 아이들의 대통령!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처럼 땅을 갈아엎다가 개미떼한테 발바닥 전체가

물리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웃는 남자, 참 멋있네요!!

망고 스티븐을 닮은 엉덩이의 소유자! 우썹썹 이러다 반하겠어요~

*본 내용은 강희 단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벼섯재배 농가 방문



아띠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5000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벼섯농가 재배에 투자하는 VDA 멤버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띠들이 벼섯 농가를 궁금해 하자 썸낭(CD활동 담당 스태프)가 저희를 그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벼섯농가가 지어지는 곳은 너무도 아름답고 멋있었지만, 재배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과 벼섯을 키우는 과정은 비 전문가인 저희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흥미롭긴 했지만, 함부로 했다가 되려 일을 망치게 될 까봐 고민했던 단원들도 있었습니다. ππ

5. HYDROPONIC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경재배 교육은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강사 분의 스케줄 문제로 인해 토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수경재배 교육 첫 주는 모두 참여했지만, 두 번째 참여에 있어서 주말이라도 수경재배를 함께 배우고 싶다는 의견과 5일 동안 밭 농사를 짓고 주말까지 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팀 내에서 더 강했고, 결국 총 3번의 교육 중 한 번 참여했습니다..

첫 주만 참여했지만.. 아띠들은 무척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 HYDROPONIC



1. 쌀겨를 태웁니다.



2. 쌀겨를 태운 재에서 자갈 등을 골라내고 토양의 영양 상태를 위해 태운 쌀겨와 섞습니다.



3. 섞인 흙을 판에 넣습니다.

5. HYDROPONIC



▲5. 쓱쓱 자라라~ 물을 줍니다.

◀ 4. 한 구멍에 씨앗 2개씩!
심어볼까요?



6. 불에 달군 쇠로 ▶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습니다.

5. HYDROPONIC



7. 흙을 플라스틱에
넣습니다! 옮깁니다!
정리합니다!!



5. HYDROPONIC



짜잔~ 기념사진! 이 사진의 포인트는!!!! 깐달 Caritas 총장 맹 아저씨의 래퍼 패션입니다.
넘~귀엽종? 맨 오른쪽은 수경재배 담당 선생님이신데요.
캄보디아에서 이 분야 전문가는 딱 2명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띠들의 일상



1. 만난 사람들

1) 9기 스리랑카 윤도희 단원



4월 어느 날, 아띠들은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놈펜 남부, 따께오(Takeo) 주에서 코이카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던 9기 스리랑카 윤도희 단원의 메시지였는데요, 여러 번의 스케줄 조정 끝에 5월 초,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띠들은 따께오-프놈펜-깐달-따끄마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도희 단원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설탕과 연유가 들어간 캄보디아 특유의 달디 단 커피가 아닌, 씹살한 쓴맛이 느껴지는 휘얼(Real) 아메리카노도 선물하는 등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녁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띠들을 바라보는 도희 단원의 피드백도 들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만난 사람들

2) 아띠들에게 김치를 주신 아주머니



럭키마트에 장을 보러 간 아띠들. 그 곳에서 아띠들은 우연히 한국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띠들의 활동과 밥은 잘 먹는지,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 아띠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치 내 자식을 같다며 아띠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싶어하셨으나, 당시 팀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아띠들은 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주머니와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아띠들은 **정말~ 우연히!** 아주머니와 한번 더 마주치게 되었고 아주머니께서는 김치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김치를 전해주시겠다는 아주머니의 전화에 아띠들은 **버선발로 마중** 나갔고 아주머니께서는 마늘쫑부터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배추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주시며 몸 건강히 지내다 가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절한 아주머니 덕분에 아띠들은 5월 한 달 동안 열무비빔밥, 열무비빔국수, 김치찌개, 볶음김치 등 식사를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열무김치를 Caritas Staff 들에게도 나눠주는 등 아띠들에게 5월 한 달은 몸도 마음도 모두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2. 결혼식

1) PC Mr.Meng 남동생 결혼식



5월, 아띠들은 두 번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깐달 까리타스 Program Coordinator인 Mr.Meng 씨의 남동생의 결혼식이었고, 두 번째는 CD(Community Development) Staff인 Mr.Rithy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결혼식답게 결혼식 내내 춤과 노래는 끊이질 않았고 이미 몇 번의 잔치를 경험해 본 아띠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Mrs.Phirum 씨의 추천으로 크메르 화장을 한 강희, 예은, 효림 단원을 본 제준, 태호 단원은 여자 단원들의 아름다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

2. 결혼식

2) CD Staff Mr.Rithy 결혼식



항상 아띠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친절한 남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CD Staff Mr.Rithy 씨도 까리타스 유스 학생 때부터 교제해오던 여자친구와 함께 얼마 전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세찬 비가 내리는 바람에 결혼식이 중간중간 중단되었지만, 비가 내린 덕분에 시원하기도 했고 아띠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결혼식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새 신랑 Rithy 씨! 행복하게 사세요!

3. 차끄다으 배우기



볶음 요리라는 뜻의 차끄다으는 야채와 고기를 뜨겁게 볶아 밥과 함께 먹는 캄보디아 음식입니다. 차끄다으를 즐겨 먹던 아띠들은 '집에서 직접 해먹을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까리타스 기숙사 Housekeeper 인 뷔 아주머니에게 부탁 드려 차끄다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뷔 아주머니와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한 강희, 호림, 예은 단원은 차끄다으를 만들 재료들을 구입해왔고 뷔 아주머니와 함께 아띠들 숙소에서 차끄다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캄보디아 음식들 중 유독 차끄다으를 격하게 좋아하는 강희 단원은 뷔 아주머니께 배우는 내내 눈빛이 초롱초롱했다는...!



아이들의 휴일



1. 축구 경기 Caritas vs Takhmao H.S



5월 29일 이른 아침. 태호 단원과 제준 단원이 함께한 Caritas팀과 깐달 지역의Takhmao High School 학생들과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으로 Caritas팀이 지던 상황에서 전반전 막바지에 한 골을 터트린 뒤, 후반전에서는 3골을 더 넣어 **4:1**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축구경기를 응원하던 여자 단원들은 축구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했고, 대단한 활약을 했던 제준 단원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2. Riverside **짜**꿈 특집



팀원들끼리의 더욱 가까운 관계 형성을 위해 제준 단원이 개인으로만 다니던 Riverside를 짝꿍을 지어 다니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결과 예은-제준, 효림-태호, 강희 짝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띠들은 서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소감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Riverside **카카공 특집**

1. 제준-예은



하루 종일 제준오빠랑 같이 블루펌킨에 있었다. 솔직히 정말로 소카호텔(리버사이드 정 반대에 있는 3시간 거리의 공사중인 호텔)까지 갈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준 오빠가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제안해서 좋았다.

긴 시간동안 한 장소에 있으면 지루할 법도 한데, 리버사이드가 보이는 곳이어서 그런지 풍경도 너무 예뻐고 제준 오빠랑 이야기 하는 것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제준오빠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다음 번에는 카메라 들고 미션 같은 것도 하자!!!!!!



나는 남들과 달리 어딜 가면 그런 장소에 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걷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좋아하는데, 저 날은 같이 다녀서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블루펌킨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것!! 예은이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뭐했어?

팀원들과 점심식사하고 1시부터 7시까지 Blue pumpkin에서 많은 대화를 했어!!

2. Riverside **싸꿈** 특집

2. 태호-효림



여권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탈 줄 알았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자전거로 프놈펜을 돌아다녀보니 멀다고 생각했던 곳들이 무척 가까워서 놀랐다. 태호 오빠와 악기상도 갔다 왔는데 태호 오빠의 뮤직수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태호 오빠 덕분에 자전거도 탈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오빠도 드디어 빈티지 샵에서 목도리를 구매해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나도 한국에 가면 필름 카메라를 알아봐야지~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니는데 도로 교통상황도 좋지 않고 효림이가 자기 자전거가 아니라 불편했던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무사히 잘 타서 다행이다. 내가 효림이를 끄집고 여기 저기를 다닌 것 같아서 효림이가 고생한 것 같다. 그런데 재밌었다!! 그리고 그 날 집에 오기 전에 치킨을 시켰는데 내가 전화할 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저씨가 fcc를 kfc로 들어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부족한 상황일 때는 두 번씩 꼭 확인해야 한다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힘들게 먹은 치킨은 정말 정말 맛있었다!!

뭐했어?

자전거를 빌려서 하루 종일 프놈펜을 돌아다녔어!!

2. Riverside 꿈 특집

3. 강희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다. 리버사이드에서 만큼은 꼭 혼자 있고 싶다. (팀원들 눈치를 살피며 웃음) 왠지 여행객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혼자 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 나의 사랑 빈티지 폰레삼을 샀는데 맘에 드는 옷이 3개가 있어서 모두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당황해서 가게에 KEEP 해두고 나중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꽤 먼 거리를 치킨이 오는 동안 제준 단원이 뛰어갔다 와줬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라는 생각을 2시간 정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다. 그런데 아쉽게 여기서 입기는 힘든 옷들만 있다.

뭐했어?

카페에 가서 공부하다가 나이트 마켓에 가서 일본인 할머니를 만나 긴 시간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어!!

강희 단원 에세이

#가난

캄보디아에서 1달러의 가치는, 오토바이 한 대가 기름을 반 정도로 채울 수 있는 것.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 영화DVD 한 장을 살 수 있고, 커피나 라임티는 3잔 정도 마실 수 있다. 러뭏이란 교통수단을 타면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 8번은 갈 수 있고, 오이/숙주/캄보디아 김치 등을 아주 많이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드림랜드(놀이동산) 입장료. 음,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것들을 꽤 많이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졌겠지.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가난하지 않아서 솔직히 정말 모르겠다. 지금은 멀어진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에게 가난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어렵듯이 느낄 뿐이었다. 캄보디아에 와서 지난 3개월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거지'라고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는 앙코르와트에서 1달러를 벌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던 소년들에게도, 시장에서 한 손에 아이를 안은 채 구걸하던 여성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잔인한 말이지만 그저 흥미로웠을 뿐이었다. 구조적인 것들을 생각해보았지만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강희 단원 에세이

그런데 어제 태호단원에게 유스 센터에 다니는 소포안&싸름이 돈이 없어서 드림랜드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때부터 계속 마음이, 좀 그렇다. 그 전에 또 다른 친구 소티어가 나에게 했던 질문 때문이었을까? 소티어는 나에게 "What do you need for your future?"이란 질문을 했고 나는 한참 병져있었다. 소티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건 '영어'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닥 필요한 게 없어. 대부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라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걸까? 행복한 삶,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 여유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나 소티어나 결국 바랄텐데 말이다. 우리는 분명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또래인데.

강희 단원 에세이

#이해

사람은 사람을 결국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마치 유행처럼 세상에 떠돌아 다닌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해보려 치열하게 노력해보긴 했는지?를 항상 묻고 싶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묻고 싶다. 우리 팀원들은 다른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굳어버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1, 22, 23, 25, 26. 많은 나이는 결코 아니다. 뭐, 그리고 사람의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해는 성장과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저번 주에 리버사이드에서 만난 일본인 할머니가 그랬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60살까지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뒤, 지금 4년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계셨다. 돈이 없어서 배낭 여행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 '나'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시던 그 눈빛, 어딘가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멋져보였다. 그게 이해의 시작일테고, 변화에의 가능성이자, 끊임없이 성장하는 힘이겠지...

다시 '이해'로 돌아가자면, 이해라는 낱말이 주는 느낌이 난 좋다. 이해라는 말은 어쩐지 구름과 강이 만나는 지점같다. 둘은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형태도, 존재하는 공간도 너무 다르다. 그치만 둘은 가까이 있고 전혀 어색해 보이지도 않으며,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안을 주는 풍경을 함께 만들어낸다. 이해 또한 그런 것 같다. 쉽게 내뱉을 때는 어리둥절할 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호기심이 있을 때,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태호 단원 에세이

5월. 덥디 더운 캄보디아 날씨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5월. 정말 너무나도 더웠다. 내일이면 시원한 비가 내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매일 아침 날 맞이했던 건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조차 잘 불지 않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들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난 유독 더위에 약했다. 여름엔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을 때도 많았다. 그랬던 내가 이런 더운 나라에 그것도 가장 더울 때를 겪고 있다니. 게다가 다른 지역 아피들과는 다르게 우리 캄팀은 CDP(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라는 농촌개발활동을 주로 하는지라 피약별 아래 밭을 일구거나 닭장을 짓는 등의 일이 많아 더위를 잘 버티지 못하는 나에겐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더위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었다.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이라는 라온아피 글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이었다(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다행인건 이제 우기가 시작된다는 것. 얼마나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우기가 대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시작된다곤 하지만 에세이를 쓰고 있는 오늘(6월 9일)이 돼서도 도대체 우기가 언제 오는 건지, 오기는 오는 건지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태호 단원 에세이

현지 생활은 만족스럽다. 앞에서 저렇게 많은 불평을 늘어 놓았는데도 만족스럽다는 것은 모순일수 있으나 실제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만족스럽다. 몇 번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Caritas Youth 학생들과도 좀 더 친해졌으며 휴일에 팀원들과 프놈펜에 나가 괜찮은 카페를 찾아 다닐 정도로 여유로워졌고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도 한류 열풍 덕분에(본의 아니게) 마트 한 칸에 자리 잡은 한국식품들로-내가 새우탕을 즐겨 먹을 줄이야-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처음엔 우리에게 굉장히 쌀쌀맞던 옆집 여자아이도 이젠 품에 곤잘 안긴다. 여길 갑자기 훌쩍 떠나버린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여러모로 뭔가 여기 생활에, 여기 사람들 속에 녹아 드는 느낌이랄까. 50여일 남짓 남은 날들,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또 기대된다.

호림 단원 에세이

매달 이 시간만 되면 창작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매일 무언가를 느끼고 또 자기 전 눈을 감아 그 순간을 곱씹지만 그 한 달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의 주제로 관통시키는 글을 쓰기란 참 어렵다. 어렵지만 이번 달 주제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잡고 싶다.

나는 처음 라온아띠에 지원한 이유도 사랑 받고 싶어서라고 종종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소중하지만 익숙해져버린 그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도넛 속에 구멍이 나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곳에 온 나는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카리타스 스태프들이 아침마다 건네는 장난스런 인사에서도 CDP활동을 나가면 느끼는 끝없는 그 친절에서도 센터의 유스 학생들의 발랄한 인사에서도 느낄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곳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내가 사랑 부스러기를 주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유쾌해지고 온화해지는 사람들을 벌써 몇이나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고 실제로 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아기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사랑스럽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면 외면하고 숨어버리던 24개월 비싸이가 어느새 27개월이 되고 친구로 우리를 알고 있으며, 12345를 말할 수 있고, 내 품에 안겨 (바로 옆에 있는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해준 것이지만) 뽀뽀도 해주었다. 마을에서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 야채를 두들기던 15개월

호림 단원 에세이

반냐도 잊을 수 없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덩달아 유쾌해지고 온화해지는 성품의 소유자 속치어 선생님의 아들 옥페이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나의 노트북의 바탕화면을 장식한 떼쟁이에 울기도 그렇게 우는 옥페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국제협력개발에 관해서 책도 찾아 읽어보고 관심이 많았다.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등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내훈련에서도 배웠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말 없이도, 개발이 진행된다면 내가 아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곳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5월에는 한국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생일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도 다른 달보다 더 생겼던 것 같다. 소중한지만 익숙해져버린 관계가 다시금 낯설어지며 내가 한국에서도 얼마나 사랑 받았던 사람이며 돌아가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해보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리움이 또 깊어졌고 내 마음에 전과는 다른 종류의 도너츠 구멍이 났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구멍난 도너츠를 닮지 말고 속까지 차고 동그란 팔빵을 닮았으면 좋겠다.

2014.06.09 빵순이의 5월 에세이

예은 단원 에세이

1. 나에게 너무 길었던 5월

내가 오월에 가장 많이 한 말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지친다'이다. 우기가 오지 않는 캄보디아는 너무너무 더웠다. 오전에 하는 발일은 더위에 숨이 막혀 5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 했고, 5월 중순부터는 밤에도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2대나 틀고도 땀을 흘리며 깬다.

나는 더위 때문인지 조그만 일에도 쉽게 피로해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문제나 미뤄진 중간평가, 한국의 좋지 않은 소식들, 350PPM 준비, 팀원과의 관계는 나를 많이 지치게 했다.

지칠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루 종일 멍-한 정신으로 밤이 되면 회의를 얼른 끝내고 일찍 일찍 잠들었던 것 같다.

이제는 기나긴 5월이 지나갔다. 남은 달은 지치지 않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KOREAN WEEK를 2주간 하면서 우리는 전보다 YOUTH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특히 350PPM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크게 관심을 가지던 몇몇 YOUTH들과 가까워졌고, KOREAN YOUTH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YOUTH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수업을 끝내고 함께 센터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들 수업에 많이 들어와 주던 CD반 친구들이 7월 1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가서 2달 후에나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껏 나는 곧 떠나는 사람이었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내가 먼저 학생들을 떠나 보내고 남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남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이제야 조금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YOUTH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팀원들과 함께 드림랜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갈 수 있을지조차도 알 수 없지만 팀원들과 함께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있다.

7월이 오기 전, 꼭 CD반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준 단원 에세이

5월은 나에게 있어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준 달이다. 여러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Youth학생들과 친해졌기 때문이다. 4월 달에 우리 팀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었다.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영어수업 Youth학생들이 처음보다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많은 방법을 강구한 끝에 피드백용지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적게 하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센터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수업 들어오라고 한마디씩 하였고 학생들은 "Okay~Okay~"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4~5명 들어오던 수업에 16명이 들어왔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 날 수업 분위기는 단연 최고였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고 있다. 수업에 들어오라고 말하면 항상 웃으면서 "Okay~Okay~"라고 웃으면서 대답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올까? 우리가 너무 못 가르친 게 아닐까?' 걱정만 하고 말 한마디 건네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늘어서 수업시간에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하고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미칠 지경이다. 항상 수업 들어오는 학생, 토요일 아침마다 같이 Soccer class를 하는 학생들이랑만 친했었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기숙사에 가서 자고있는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면 웃으면서 일어나 수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무척이나 흐뭇하다.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가 왔다고 느낀 건, 기숙사는 공동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생활하는 숙소보다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10기들이 2개월이나 살았다는

제준 단원 에세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숙사에서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숙사에서 살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센터에 있을 때면 틈날 때마다 기숙사에 가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 수업 끝나는 시간인 5시가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또, 나는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데 학생들이랑 친해지기 전에는 이런 장난을 쳤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하고 망설였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아끄럭~(못생긴)"을 외치면 학생들은 나에게 "Bad boy~"라고 외치면서 받아친다. 서로 장난치면서 웃고 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즐겁고, 그 순간엔 모든 걸 잊게 되어서 더 즐겁다.

5월은 CDP(Community Development Program)활동도 많이 하였다. 원래 캄보디아 올 때부터 CDP활동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었는데 4월까지 마을에서 미팅을 주로 했다면, 이번 달은 실제로 우리가 "뜨러꾼"이라는 작물을 심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밭도 갈고, Mushroom house 제작하는 곳에서 톱으로 나무 자르기, 못박기 등도 하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농사일을 해보니 정말 단순해 보여도 엄청난 노련미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먹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항상 우리를 챙겨주는 Caritas staff들과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시간도 잘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힘내자!

깐달 아기 스페셜

김홍홍홍~ 김홍

다람쥐 비싸이



올보 귀요미 옥데이





두상 최고 미녀 반냐



얼짱 베이비 재프라



내가 반냐예요



썸남 아저씨
아들 재프라와
만났어요.



우리 손도 잡았어요

반냐 스페셜



저 야채도 썰 줄 알아요



후.. 시작해
볼까?



찰찰찰 찰찰찰 찰찰찰 찰찰찰



